"변화에 대응, 주도적으로 미래 열어가자"

전북대, 개교 75주년 기념식

"한발 앞서 변화에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각오로 힘을 모읍시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10월 15일 개교 75주년을 기념해 더 큰 도약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지난 14일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및 교수, 직원,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개교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장기근속자 표창을 비롯해 대학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을 시상하는 '동행상'과 우수부서, 우수학과, 베스트티처에 선정된 구성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또한 전북대 제37대와 38대 총동창회장을 지낸 이용규 성전건설 대표에게 명예 경영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동행상 교원 부문 최우수상에 정길도 교수(공대 전자공학부)가 선정된 것을 비롯해 직원 부문에는 재무과와 교무과 교원인사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학과 대상에는 공대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고분자나노공학전공)가, 성과관리 우수부서에는 혁신교육개발원, 재정운영 우수부서에는 발전지원부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가장 잘 가르치는 교수를 선정하는 베스트티처 대상은 장미선 생활대 교수가 수상했다.

개교 75주년을 맞은 전북대학교는 지난 14일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및 교수, 직원,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개교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수 구성원 · 대학발전 기여 동문 · 시민 등 포상

또 대학발전에 기여한 동문 및 지역민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동문상과 전북대 도민상, 공로상에는 정영택 전북대총동창회장과 동아일보 이종승 소장, KBS 함윤호 아나운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김동원 총장은 개교기념식사를 통해 "우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캠퍼스혁신파크 유치와 부처 협업형 사업 공모 선정 등 거점국립대 가운데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며 "이러한 괄목할 성과들은 두말할 것 없이 구성원 여러분이 열정으로 합심해 준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학은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인 고민을 통해 지역발전 동력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양질의 교육 서비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도전적 모험연구와 질적 연구로의 대전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기반 기업 운영 경제 · 모교발전 공헌

전북대, 이용규 대표에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난 14일 열린 개교 75주년 기념식에서 이용규 성전건설 대표에게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원 출신인 이용규 대표는 30년 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수주액 5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성장시키는 등 같은 업계에서 신화를 이뤘다.

이러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와 협력해 국가 기반사업을 시행하는 등 성과를 올렸고,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따뜻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북대 제37대와 38대 총동창회장을 지낸 이 대표는 동창회장 재직 시 동창회 인명록 제작을 통해 동문 간 네트워크 강화에 힘썼고, 동창회비 자동이체 제도를 처음 도입해 현재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모교 상대 학생휴게실 조성과 교수 해외 연구비 지원 등 끊임없는 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참 경영인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물리치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운영

내년도 1학기부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전주캠퍼스 일반대학원에 물리치료학과를 신설하고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과정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물리치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과학적 지식 탐구를 위해 신설된 물리치료학과는 지역사회 최초로 신경계 및 근골격계 실무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수준 높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물리치료학과는 PNF(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전문 국제 강사들을 배치해 신경계 발달 전문치료사의 자격 요건인 120시간 이수를 바탕으로 신경계 전문 물리치료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근골격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번지 피지오(Bungee-Physio) 과정을 교육과정에 도입해 근골격계 실무치료사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세연 주임교수는 "물리치료는 이제 단순히 신경계나 근골격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능 회복 혹은 통증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토털 헬스케어를 위한 전문가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전문치료사의 수요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며, 이에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후위기 · 환경문제 심각성 미래에 알린다

전북교육청-NH농협은행 전북본부, '교실숲 조성' 협약

멸종위기 식물 통한 저탄소 ·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 협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천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손을 맞잡았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과 장경민 본부장은 14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교실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실숲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선정한 멸종위기 공기정화식물과 친환경 화분을 교실 내 학습공간에 배치해 학생들이 직접 식재 · 분갈이 등을 체험하도록 하는 현장형 환경교육의 장이다.

서거석 교육감과 장경민 본부장은 14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교실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미래세대에 알리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교실숲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학교 구현, ESG 가치구현을 선도하는 교육 확대 등이다.

장경민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길 희망한다"며 "저탄소 · 친환경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교실숲 조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실숲이라는 교실 공간의 생태적 전환을 통해 학생들이 삶 속에서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쾌적한 교실 환경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도내 초중고교 210곳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다음 달 21일까지 도내 초 · 중 · 고교 210곳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의 학생 성인지 감수성 검사(P-GTS, Proid-Gender Sensitivity Test)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진단검사는 초 · 중 · 고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진단검사 내용은 △성평등 의식(가정생활 · 학교생활 · 직업생활 · 사회생활) △양성평등 실천 의지(행동의도 · 실천정도) △성 인권 의식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진단검사 후 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결과 활용 방법 및 지도 방안 연수를 통해 맞춤형 성교육과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도내 마이스터고, 17일부터 신입생 원서접수

군산기계공고 등 4곳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군산기계공고 등 도내 4개 마이스터고가 17~20일까지 4일 간 총 468명의 2023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산기계공고는 기계시스템제어과, 전기시스템제어과 등 2개 학과에 108명을, 전북기계공고는 폴리메카닉스과, 로봇자동화과, 정밀기계과, 메카트로닉스과 등 4개 학과 234명을 각각 모집한다.

또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종자산업과, 바이오식품과, 첨단시설과 등 3개 학과 90명을, 한국경마축산고는 말산업과 36명을 뽑는다.

원서접수는 전북고입전형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내신성적과 심층면접 점수를 합산해 성적순으로 선발, 최종 합격자는 11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마이스터고는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해 1곳만 지원해야 한다.

한편 마이스터고 입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특히 장학금과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며, 선취업 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자세한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고 관악부,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교육부장관상'

전주공업고등학교 관악부가 전국대회에서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학교 관악부는 지난 8월 27일 열린 '2022 대한민국 합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0월 8일 개최된 '제46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획득했다.

제46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한국관악협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충남교육청이 후원한 전국대회로 전주공고는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전주공고 관악부는 총 60명으로 구성됐으나 이 중 11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49명만 출전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김규훈 지도교사의 지휘에 맞춰 '한빛 행진곡'과 자유곡 'Flight of Valor'를 연주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남중, 즐거운 학교 조성 교육공동체가 '한마음'

목공 동아리 활동 통해 자기만의 가구 제작 기회

1인 1악기 교육으로 관악기 · 타악기 배워

"상호간 특화된 교육력 제공하며 함께 성장 중"

전주남중학교(교장 한옥경)는 '학생들이 매일 행복을 경험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4일에는 인근 초등학교 희망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격체험 프로그램을, 12일에는 지역주민 및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목공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전주남중은 1937년 개교, 평화동의 유일한 원도심학교로서 정서 함양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자중심 활동공간 사업을 통해 교과와 비교과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과 기초학력 맞춤지도, 수학 또래 멘토링 등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가을마다 주학야독(晝學夜讀) 밤샘 독서캠프 운영,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직접 만든 쿠키를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는 제과제빵 봉사동아리도 있다.

또한 전주 시내 중학교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공실을 갖춘 '목공거점학교'다. 자유학기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목공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문 공구를 활용한 목공의 기초와 심화 교육을 받고 전교생 모두가 목재를 이용한 자기만의 가구를 제작하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윈드 오케스트라는 전주남중 학생들의 자랑거리다. 학교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2012년 창단했다. 학생들은 1인 1악기 교육으로 20여 종의 관악기와 타악기를 전문 강사로부터 배운다.

끝으로 전주남중은 전주 시내 중학교중 유일하게 농구부가 있는 농구 명문학교다. 1937년 창단해 제22회 전국 남녀 중고 농구대회 우승, 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농구대회 우승,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을 했다. 올해전국소년체육대회 동메달, 전국 중고농구 추계 연맹전 준우승을 하는 등 화려한 역사와 실력을 자랑한다. 공기소총 사격부 또한 문화체육부 장관기 사격 개인 1위 · 단체3위와, 전북소년체육대회 대표로 선발되는 등 선수육성에 활발하다.

전주남중 관계자는 "미래교육의 가치는 좀더 폭넓은 다양성과 특수성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길러내고자 한다"며 "전주남중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행복을 경험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면서,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소통과 행복 경험의 장을 마련해 상호간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력을 제공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사랑의 헌혈 캠페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 본청 북편 주차장에서 2022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 행사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도교육청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공직자로서 적극적인 생명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헌혈버스를 소독하는 등 직원들이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